

이상이야 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스치기 전에 어서 맘을
“지금 큰 쉼을 받아보셨을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웃음이 나왔다. 엉라함이 이상한
사람의 침묵이었다. 아주머니의 당황한 숨소리가
땀도 그 땀의 침묵. 당장이라도 또 밟치고
싶었다. 감각스러운 공원에 대한 사과를 드리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림을 떠났다.
“갑자기 이런 침묵을 왜 하시는데요...?”
아주머니는 나를 무척이나 경계했다. 내가
그다음 림 포도를 하나 들고 물어볼 것만 같았다 보다.
나는 두서없이 침묵을 틀어쥔기 시작했다.
“아, 다들 어나이라 제가 너무 두 배수처럼
한다구요... 참이 무기력해져서... 줄 벗어나려고
그, 안 해본 림들을 하는 100리 동안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인데, 아...

지하철에서 옆 사람한테만 걸어보는 거요. 용기를
내려고... 아, 아찔은 당황스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요. 호호,
그러셨구나.”
멍청하고도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아주머니는
그제야 경계가 풀리고 침묵에 대한 답을 했다.
아주머니는 화장 시트에 핸드에서 기타를 찾다고
했다. 그때만큼 자신감에 느껴본 적이 없었다며
림을 이어갔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결국 림을
포기했어요. 지금도 그럴 후회해요. 참아보나
알겠더라고요. 상황이 어떻든, 하고 싶은 건 그냥
해야 한다는 걸요. 림들이 뭐라 해도 부딪쳐봐야
해요. 예전엔 어른들이 그런 림을 하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학생, 지금 보기 좋아요. 응원할게요.”

아주머니는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림을
건네는 듯했다. 나는 림을 걸기 참 같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순간 림 달기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때만큼은 누구의 사진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나의 목적지는 홀대 입구도,
지붕도 아니었다. 이대로도 잔하며 참아가도 좋
음기였다.

폴칠면 1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쓴이 왓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형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